



퍼포머 몽크



아론 제섭



마리오



크레이지 미스터 제이



팀클라운

세계가 극찬한 거리예술 개척자들 한자리에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0일 5개국 대표 아티스트 무대... 19일 밤 자발적 '프리 버스킹' 선사

매주 토요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 일대를 거리 예술의 향연장으로 바꾸어 놓는 광주프린지 페스티벌이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미국 서커스 예술의 개척자 아론 제섭, 일본 스트리트 퍼포먼스의 1인자 퍼포머 몽크, 독일 세계 거리마술대회에서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한국 코미디 마술사 크레이지 미스터 제이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다. 각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을 대표하는 다섯 팀의 아티스트들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거리 공연예술 장르를 탄생시킨 개척자들이다. 이들이 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연 구성 또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 맞춰

새롭게 기획했다. 미국의 아론 제섭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첩보 원으로 변신해 저글링과 서커스를 펼치는 '애런 임파서블'과 코미디쇼를 함께 준비했다. 한국의 크레이지 미스터 제이는 독일에서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작품 '이상한 마술사의 웃긴 탈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긴장감을 더한다.

일본의 퍼포머 몽크는 동양적인 배경음악에 구슬땀기를 결합한 '프로페셔널 저글러'로 화려한 무대를 연출할 계획이다. 대만의 마리오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주인공 마리오를 통해 웃음과 감동의 휴먼 드라마를 선보이며, 중국 전통 곡예와 서커스의 대표주자인 중국 곡예단은 자전거 곡예, 줄타기, 막대기 곡예 등 고난도 서커스 기술을 집

대성한 남다른 스케일의 무대를 준비했다. 공식 공연을 하루 앞둔 19일에는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아티스트들이 자발적으로 '프리 버스킹' 무대를 선사한다. 자세한 시간과 공연 내용은 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3-0410. /이연수 기자

“한국 전통문화 체험하세요”

내달 5일부터 전국 사찰 39곳 '외국인 템플스테이 주간' 진행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다음 달 5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템플스테이 주간'을 진행한다.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39곳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2만원, 당일 프로그램을 1만원에 체험한다. 사진은 장성 백양사 템플스테이 진행 모습.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다음 달 5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외국인 템플스테이 주간'을 진행한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주 마곡사, 보은 법주사, 순천 선암사, 양산 통도사, 해남 대흥사를 비롯해 장성 백양사, 해남 미황사 등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39곳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2만원, 당일 프로그램을 1만원에 체험한다.

1박 2일 프로그램은 사찰에 머물면서 참선·108배·연꽃컵등 만들기·소금만다라·108염주 만들기 등 한국 전통불교 문화를 경험해 보는 체험형과 예불·식사·사찰 예절 교육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보내는 휴식형으로 구성된다.

당일형 프로그램은 산사에서 2~3시간 동안 스님과의 차담, 연꽃등 만들기 등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하게 준비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주간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하며 일부 사찰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진행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영문 홈페이지(eng.templestay.com)에서 확인한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슌님은 “작년 한 해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연인원 기준 7만명을 넘어섰다”며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을밤 물들이는 색소폰 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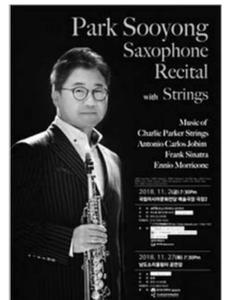
박수용 리사이틀, 내달 2일 ACC예술극장2

지역 재즈대중화에 앞장서 온 색소포니스트 박수용(호남신학대 음악학과 교수)의 연주회가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광주시향 악장)이 이끄는 컨템포러리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특별한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오는 11월 2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2에서 '박수용 색소폰 리사이틀 with 스트링'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작품 '시네마 천국'과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빌리 조엘의 대표곡 'Just The Way You Are', 'New York State Of Mind'를 비롯해 라틴재즈 'Quizas, Quizas, Quizas' 등 친숙한 곡들로 재편곡된 연주를 선보인다.

또한 이번 연주회에서는 재즈를 예술로 승화시킨 전설의 색소폰 연주자 찰리파커의 명반 'Charlie Parker with Strings'에 수록된 'Everything Happens To Me, Just Friends'를 국내 초연할 예정이다.



재즈와 클래식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이끄는 공연인 만큼 멋진 크로스오버의 무대가 기대된다. 한국의 첼테이커, 마이클 부블레로 평가받는 재즈보컬리스트 윤덕현과 실력파 소프라노 박성경 씨가 이번 무대에 함께 참여한다. 색소포니스트 박수용은 재즈 명문 미국 뉴스쿨과 뉴욕대학교에서 수학하고 2010년부터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여러 합창단 및 국악단, 오케스트라, 오페라단과의 협연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인 재능을 펼치고 있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이연수 기자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55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 조정가능)
- 문의. 010-3605-5000

